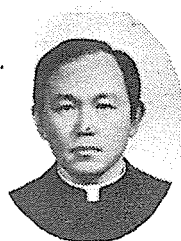


복음과 의료

—신앙적 측면에서—

김 증 호 신부

서울대교구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상과 문제점에 있어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가난한 자와 병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대는 오히려 예수님의 시대보다 더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가난과 병고가 예수시대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이에 따르는 인간문제, 소외문제를 내재하고 있음을 전제할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고 인간을 가르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음성서에는 예수께서 환자를 치유해주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성서해석자들에 의하면 예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즉 구세주이심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예수께서 병고에 고통받는 인간을 고쳐 주신 이유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약하고 버림받은채 고통중에 있는 인간을 볼 때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의 환자나 현대의 환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소외감이다.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함께 엄습해올 때 많은 환자들은 절망

감에 빠져들고 만다. 따라서 환자들은 숙명론에 빠지기 쉽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치유활동은 숙명론에 깊이 빠져있는 인간을 믿음의 희망의 방향으로 옮겨주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활동의 핵심은 인간을 절망과 숙명론에서 믿음과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길, 사랑을 받은 환자들은 전혀 새로운 모습의 인간으로 변화됐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환자들을 대하고 환자들과 거의 모든 생애를 지내는 의료인들, 특히 복음과 의료를 연결시키려는 가톨릭 의료인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고통받는 인간을 이해하고 돌보셨는가를 깊이 알아듣지 못하면 오히려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사람들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처지에서 벗어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놀라운 변화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체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후대에 까지 이르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반을 이루게 했다.

예수께서는 병은 죄의 결과라는 사고방식 아래 환자들을 사회적으로도 소외시켰던 당시 유대사회속에서 모든 환자들을 낮게 해주

했다. 예수께서는 치유를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병의 종류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낫게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질병환자보다 엄격하게 격리돼 있던 문둥병자에게도 거침없이 가시는 등 예수께서는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이다.

현대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특권은 스스로 얻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시는 소명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의학교육의 방향에서 볼 때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병원 종사자들의 신분은 대부분 중류 이상으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리스도교인들은 복음 정신을 되풀이 하여 찾아야 되며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사명을 가진 교회와 교회기관 또한 무엇일지 존재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제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김수환추기경의 말씀과 같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병자를 고치며 그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려는 의료인들은 먼저 치료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최근 급격한 근대화로 모든 것이 변화됐지만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농촌구조 경제의 도시화와 공업화라 하겠다. 따라서 과거에는 의료혜택이 못미치는 가난한 환자들이 농촌지역에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현재에는 도시화로 비대해진 대도시 주변에 물려든 사람들이 소의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아시아 가톨릭의학총회에서 신앙인으로서 현대 의료사업의 목표 및 임무를 살펴본 홍강의 교수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톨릭교회를 배경으로 한 의료기관은 의대 1개 종합병원 29개 진료소 34개, 의사 6백여명 간호원 1천2백명에 달한다. 또한 이들 의료기관의 베드수는 국내 전체 병원의 10%를 차지,

신자들 3.5%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가톨릭계 의료기관이 얼마나 많은 불우한 이웃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는지 반성해 봐야 하겠다.

수년동안 본인은 신부이며 의사로서 서울 주변의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서울의대 학생회 의료봉사팀과 함께 돌보면서 그들 주변의 문제를 같이 발견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도시 집중화의 물결속에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물러든 농촌사람들이 이룬 비참한 상태의 지역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핵 등 사회적으로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이 난무하고 있는 이들 지역은 인간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식량과 주택문제의 해결이 요원한 곳으로 환자들이 발생해도 전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채 고통당하는 쓰라림을 겪는 곳이었다. 의료보험의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지만 대부분 안정되지 못한 직장생활을 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배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부자에게 더 주었던 예주시대 사회상이 현대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져야 할 의료보험 혜택조차 가난한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7년에 걸쳐 매주 이같은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의사나 간호원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계속 나타났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응급환자의 발생이다. 빈곤과 불량한 주거환경 등으로 결핵과 부인병은 물론 소의감 등으로 인한 신경증적인 증세와 정신질환이 많이 발생하지만 급히 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의 발생은 사무적인 처리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병원측의 태도 때문에 더욱 애타는 실정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급조건 및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의료보호혜택이 못미치는 이들에게 많은 교회내 의료시설이 혜택을 베풀수 없는지 안타깝다. 치료를 위한 자료 및 기술과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로 생명을 잃어가는 환자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6.25의 와중속에서 가난하고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피난민들을 치료해주던 많은 가톨릭병원들의 소박한 의료활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이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소박하게 시작했던 가톨릭의료사업이 비대해지면서, 또한 도태되지 않고 나오되지 않기 위해 허덕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정신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병원운영등 현실적인 문제보다 생명의 귀중함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중시하여 전체 의료사업 가운데 일부를 할애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의과대학이나 교육병원등은 최신, 최고의 기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의학교육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일차진료와 전체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양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국민의 15%에 불과하며 한의는 25%, 약국은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한 통계조사가 발표된바 있지만 의료요원의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다만 소규모라도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가 지역사회속에서 봉사하는 교회병원의 모습을 보이는 이상적 시스템의 교회가 증가되기를 바랄 뿐이다. 실제로 삼척의 꼴롬반회가 운영하는 병원, 증평의 메리놀병원, 정선의 프란치스코회 병원등이 양적인 비대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역사회속에서 봉사하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서울근교 AFI 회원들이 운영하는 진료소도 시설

확충이나 고급전문의 확보보다 현직 의사들의 여가를 이용, 진료혜택을 베풀고 있다.

인간의 가장 완전한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인간에게 핵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셨다. 그리고 속명론에 빠져 좌절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현대 의료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가끔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톨릭 의료사업의 기본적인 관심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통중의 이웃에게 두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기성사회의 물질화를 실랄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것, 참다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 자진하여 가난한 이들이 있는 현장에 뛰어 들어 봉사활동에 나서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졸업후 일해야 할 병원에서 느끼게 되는 분위기와 변모되는 모습은 안타까운 것이다. 의과대학교육이나 실습과정에서 전반적인 국민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의료직 종사자들이 현실을 의면하는 사태를 막아야 하겠다.

능률주의와 실적위주의 사회풍조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일하는 의료종사자들도 사회풍조에 휩쓸리거나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 복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99마리의 양들 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사업 종사자들은 2천년 전 예수께서 행하셨던 인간 고통의 치료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따름으로써 전인류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연결성을 의료직 직분 안에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전문 직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며 부르심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수행할 때 참으로 기쁜 복음의 실천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